

악플러의 정체와 새로운 결말

영상을 보고, 핵심 내용을 떠올리며 풀어 보세요.

학년 / 반 _____

이름 _____

날짜 _____

영상 미리보기

제비를 몰래 쫓아다니며 영상을 찍어 올린 스토킹 범인이 강준성이 밝혀진다. 제비와 친구들은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공유한 사람'이라는 물증을 모아 사이버 폭력에 맞선다. 한편 가족을 모두 잃고 누나가 좋아하던 소설로 들어온 강승이의 사연과, 도망치듯 이곳에 온 제비의 과거가 드러나고, 소설 주인공이 다미에서 제비로 바뀌며 제비는 스스로 자신의 꿈(새로운 결말)을 찾아 나선다.

1

내용 이해 · 객관식

제비를 몰래 쫓아다니며 영상을 찍어 올린 범인은 누구인가요?

- ☐ ① 강준성
- ☐ ② 수호
- ☐ ③ 진우 선배
- ☐ ④ 강승이

2

추론 · 까닭 찾기

강준성이 그런 일을 저지른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 ☐ ① 예전부터 제비가 너무너무 미워서
- ☐ ② 돈을 벌려고
- ☐ ③ 영상으로 관심을 받고 싶어서
- ☐ ④ 선생님이 시켜서

3

추론 · 단서 찾기

친구들이 강준성을 범인으로 지목한 결정적 물증은 무엇인가요?

- ☐ ① 강준성이 스스로 털어놓은 솔직한 자백
- ☐ ② 영상을 가장 먼저 공유한 사람이라서
- ☐ ③ 강준성의 일기
- ☐ ④ 선생님의 목격

4

추론 · 마음 읽기

강승이가 소설 속으로 와서 돌아가기 싫어한 까닭은?

- ☐ ① 소설이 재미있어서
- ☐ ② 학교 다니며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싫어서
- ☐ ③ 친구가 많아서
- ☐ ④ 현실엔 가족이 없고, 누나의 소설이라서

5

순서 맞추기

이야기가 일어난 순서대로 기호를 써 보세요.

- ☐ ㄱ 강준성이 스토킹 범인으로 밝혀진다.
- ☐ ㄴ 친구들이 증거를 모은다.
- ☐ ㄷ 강승이가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는다.
- ☐ ㄹ 소설 주인공이 다미에서 제비로 바뀐다.

→ → →

6

사실 구별 · 객관식

강준성을 신고하려 할 때 나온 이야기로 알맞은 것은?

- ① 신고하면 무조건 감옥에 간다
- ② 증거를 지우면 더 무겁게 처벌된다
- ③ 신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 ④ 어른이 되면 저절로 자동으로 처벌된다

7

해석 · 의미 파악

제비가 친구들과 함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꿈)'을 찾으려 하는 모습이 보여 주는 것은?

- 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는 성장
- ② 이제 학교 공부를 아예 그만두려는 것
- ③ 소설을 떠나려는 것
- ④ 친구를 멀리하려는 것

8

종합 · 주제 파악

이 이야기가 사이버 폭력(악플·스토킹)에 대해 전하는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관심을 위해서라면 관찮다
- ② 혼자 참고 넘기면 된다
- ③ 증거를 모아 함께 맞서고 신고해야 한다
- ④ 유명인이란 누구나 다 당연히 겪는 일이다

9

적용하기 · 서술형

강준성처럼 몰래 영상을 찍거나 악플·소문으로 괴롭히는 일을 당하거나 목격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써 보세요.

10

가치 판단 · 서술형

제비처럼 스스로 '새로운 결말(꿈)'을 만들어 가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지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정답지

서술형·열린 문항은 예시 답안이며 학생의 생각을 폭넓게 인정해 주세요.

고학년

악플러의 정체와 새로운 결말

- 1 **정답** ㉠ 강준성
- 2 **정답** ㉡ 영상으로 관심을 받고 싶어서
- 3 **정답** ㉢ 영상을 가장 먼저 공유한 사람이라서
- 4 **정답** ㉣ 현실엔 가족이 없고, 누나의 소설이라서
- 5 **정답** ㄷ → ㄴ → ㄱ → ㄹ
- 6 **정답** ㉤ 증거를 지우면 더 무겁게 처벌된다
- 7 **정답** ㉠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는 성장
- 8 **정답** ㉢ 증거를 모아 함께 맞서고 신고해야 한다
- 9 **정답** [예시] 혼자 참지 말고 증거(화면·날짜)를 남겨 두고, 믿을 만한 어른이나 친구에게 알리고 신고한다. 괴롭힘을 부추기는 댓글·공유는 하지 않는다. · (평가) 증거 확보·신고 등 현명한 대처를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봐 주세요.
- 10 **정답** [예시] 정해진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용기 내어 도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 (평가) 주체적인 마음가짐을 까닭과 함께 적었는지 봐 주세요.